

가족 및 직업 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en in the Early/Middle Adulthood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徐晶雅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韓慶惠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Jeong A Seo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 Gyoung Hae Ha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family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men in their early/middle adulthood. For this purpose, total sample of 415 married white collar male workers in Seoul were selecte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rly adulthood and middle adulthood in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male workers. Second, marital satisfaction,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rate of their spouses were higher among men in the early adulthood, whereas the rate of specialized and managerial jobs and job flexibility were higher among men in the middle adulthood. Third, parental

* 이 논문은 1998년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status, parental role satisfaction, work flexibility, job security and job satisfac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early adulthood, whereas parental status, parental role satisfacti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and job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it in the middle adulthood.

I. 문제 제기

남성에게 있어 직업은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소득획득원으로서뿐 아니라 정체감 확립이 이루어지거나 생의 성공 정도가 평가되는 주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역할에 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이에 반해, 남성의 삶에 있어 가족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에 관한 실증 연구는 극히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해 왔다.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도 직장에서의 역할을 전반적인 삶에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가족에서의 역할은 주변적인 것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한국 경제가 안정세를 이루면서 이러한 목표 지향적 직업 가치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가족역할이 직업역할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아버지역할 참여나 가족 및 직업 다중역할수행에 대한 연구(이숙현, 1995; 한경혜, 1996)가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 연구의 새로운 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남성을 단순한 '부양자'가 아니라, '양육자' 혹은 '배우자'로 보려는 이원론적인 시각이 확산되었다.

남성의 가족과 직업을 보는 시각이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있어 가족과 직업이 가지는 의미는 서로 다른 사회적 상황을 경험한 중·장년기 연령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중·장년기별 차이는 이 두 시기가 개인발달적, 가족생활주기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장년기는 가족과 직업에서의 역할 전

이의 시기가 중복되거나 짧은 시간에 집약되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한경혜, 1996), 중년기는 부부 관계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해 가면서, 직업적으로는 절정기에 달하지만,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는 시기이다(김명자, 1992; 이정덕·최은경, 1994에서 재인용). 그러나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는 연구 대상을 성인 남성 전체로 확대하거나 중년기에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Barnett, Marshall, & Pleck, 1992; Benin & Nienstedt, 1992; Kinnunen, Gerris, & Vermulst, 1996; Voydanoff & Donnelly, 1989).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직업특성 변수의 영향력이 중·장년기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직장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이 중·장년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부모동거여부, 부인취업여부, 자녀유무, 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등의 가족관련특성과 직업유형, 직업유통성, 직업안정성, 동료관계의 질, 직업만족도 등의 직업관련특성이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중·장년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중·장년기¹⁾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은 삶의 전전함을 상징하는 중심적

1)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송정아, 1994; 진미정·옥선화, 1994; Erickson, 1980)들의 연령 구분에 기초하여 장년기를 결혼

인 개념 중 하나로 신체적 복지감, 물리적 복지감과 함께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부정적,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장재정, 1987; 진미정·옥선화, 1994에서 재인용).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들은 중년기와 장년기가 개인발달적, 가족생활주기적, 사회 및 직업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시기임을 인식하고, 심리적 복지감을 가족구성원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을 중·장년기로 나누어 본 연구(박미석, 1996;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는 약간 있으나 가족 및 직업관련변수가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장년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실증적으로 살핀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들 소수의 연구들마저 부모역할만족도를 살펴본 Campbell(198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직업특성변수의 영향력에 치중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성의 가족특성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직업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이 중·장년기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고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 부분에서는 중·장년기에 관계없이 가족·직업관련변수가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2.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변수고찰

선행연구에서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는 가족특성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의 취업여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결과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부인의 취업이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Keith & Shafer, 1983)가 있는 반면에, 부인의 취업이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essler & McRae, 1982)도 나타나고 있다.

자녀유무와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은 자녀가 부모의 복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Campbell et al., 1976; Mills, Grasmick, Morgan, & Wenk, 1992).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소수 발견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행복의 원천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생의 의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Umberson & Gove, 1988).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nett et al., 1992; Cleary & Mechanic, 1983; Coverman, 1989; Mills et al., 1992; Voydanoff & Donnelly, 1989).

부모동거여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져 왔기 때문에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선행연구에서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는 직업특성변수로는 직업유형, 직업용통성, 직업안정성, 동료관계의 질, 부모역할만족도가 있다.

직업유형²⁾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전문직이나 관리직인 경우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다는 것에 선행 연구 결과가 일치되고 있다(박미석, 1996; Campbell et al., 1976; Turnipseed, 1994).

직후부터 40세미만까지로, 중년기를 40세이상에서 60세미만까지로 구분하였다.

2) 많은 연구들에서 직업 유형에 따라 종속 변수의 영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장미나, 1994; Higgins et al., 1994; Turnipseed, 1994; Wilson & Peterson, 1988)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업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에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Higgins와 그의 동료들(1994), Turnipseed(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를 참고로 하여 직업유형을 전문 및 관리직과 사무직으로 이분하였다.

직업응용성과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가사와 양육을 직업과 병행해야 하는 취업모가 주된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Voydanoff & Donnelly, 1989). 여성에게 있어 낮은 직업응용성은 심리적 복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직업과 가족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Kinnunen et al., 1996). 따라서 직업응용성 변수가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업안정성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업안정성이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Larson, Wilson, & Beley, 1994; Wilson Larson, & Lee, 1993).

동료관계의 질이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동료 혹은 상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남성의 심리적인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Turnipseed, 1994).

직업만족도가 남성의 심리적인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직업만족도와 심리적 복지감 사이에 유의한 정상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에 결과가 일치한다(Cleary & Mechanic, 1983; Kinnunen et al., 1996).

이상에서 살펴본 가족·직업특성변수의 영향력에 교육수준이나 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 수준이 남성의 심리적인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진다는 연구(박미석, 1996; Campbell et al., 1976)가 있는 반면에 교육수준이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Barnett et al., 1992; Ulbrich, 1988)도 있다.

소득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서 소득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Managhan & Parcel, 1990; Mills et al., 1992; Ulbrich, 1988;

Voydanoff & Donnelly, 1989).

III. 연구 방법

1. 조사도구의 작성

심리적 복지감은 Tiedje와 그의 동료들(1990)이 만든 복지감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이희정(1994)의 척도와 Umberson과 Gove (1989)가 사용한 심리적 복지감 척도를 바탕으로 9 문항을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리커트식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Cronbach's α 로 측정된 신뢰도 계수값은 .90이었다.

결혼만족도는 이희정(1994)과 장미나(1994)의 척도를 참고로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 '결혼전과의 비교', '친구와의 비교'를 내용으로 3문항을 구성하였다. 측정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신뢰도계수값은 .91이었다.

부모역할만족도는 이희정(1994), 현은강(1994), 강희경(1994)의 척도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만족', '자녀의 순응도에 대한 만족'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값은 .9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직업 응용성은 Glass와 Camarigg(1992)의 척도를 한국 실정에 맞도록 구성하여 사용한 장미나(1994)의 척도와 조은숙(1997)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출퇴근시간의 융통성', '외출이나 자유시간의 융통성'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조사후 측정된 신뢰도 계수값은 .80으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직업안정성은 한경혜(1993)의 척도와 박승열(1995)의 척도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퇴직 중용에 대한 두려움', '정년에 대한 인식' 등의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값은 .69로 신뢰도 확보에 무리가 없었다.

동료관계의 질은 이학규(1994)의 직장내 인간관계

에 관한 척도와 이현정(1995), 차은경(1993)의 척도를 바탕으로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에 관련된 4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값은 .72 였다.

직업만족도에 관한 척도는 직무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측정하는 박승열(1995), 이학규(1994), 이희정(1994)의 척도에서 4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 '직업의 기대부여정도' 등의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값은 .81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남성의 가족과 직업 관련 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년기와 중년기에 있는 기혼의 직장남성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 화이트 칼라 근로자와 블루 칼라 근로자가 모두 연구에 포함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연구 설계상의 문제³⁾ 때문에 화이트칼라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만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앞서 1997년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20명의 기혼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7년 9월 2일부터 1997년 9월 3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화이트칼라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직업과 연령이 편포되지 않도록 유의표집하였다. 총 465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것 중 부실기재한 것을 제외하고 41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가 8.2%, 30대가 48.4%, 40대가 31.2%, 50대가

12.1%로,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9세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17.3%, 전문대졸이 12.5%, 대졸이 46.3%, 대졸이상이 23.9%였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미만이 30.5%,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이 38.5%,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이 26.6%, 500만원이상이 4.4%로 평균은 248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와 백분율,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중·장년기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과 직업 관련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할표 분석법 혹은 t-검증을 사용하며, χ^2 값 또는 t 값을 산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령층에 따른 가족 관련 특성변수와 직업 관련 특성변수가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기혼 직장남성의 심리적 복지감

<표 1>은 기혼 직장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을 중·장년기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이다.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은 중간정도 수준이며 중·장년기 연령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중년기보다 장년기의 심리적 복지감이 더 높다는 연구(Bradburn & Caplovitz, 1965; 박미석, 1996에서 재인용)나 장년기보다 중년기의 심리적 복지감이 더 높다고 한 연구(Campbell et al., 1976)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3)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직업환경특성에 그다지 중요성을 두지 않는 반면에 블루칼라 노동자는 직업 환경에서의 물리적 조건과 환경의 청결함, 그리고 직업에서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Turnipseed, 1994) 직업의 의미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블루칼라 노동자를 모두 연구에 포함시킬 경우 두 집단에서 중요시되는 변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한된 수의 변수를 설정하는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의 해석에도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크다.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블루 칼라 노동자를 함께 표집하여 비교하는 연구도 매우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중년기 연령별 비교가 주목적이므로 화이트칼라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중·장년기에 따른 기혼 직장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

변수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백분위점수	F(t)값
심리적 복지감	장년기	234 (56.8)	36.81 (8.31)	58.4	.42
	중년기	178 (43.2)	36.46 (8.38)	59.9	

〈표 2〉 중·장년기에 따른 기혼 직장남성의 가족 관련 특성

관련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위점수	F(t)값	χ^2
부모 동거여부 ^a	장년기				.09
	중년기				
부인 취업여부 ^b	장년기				5.34*
	중년기				
자녀 유무 ^c	장년기				34.71***
	중년기				
결혼 만족도	장년기	12.41 (2.53)	82.7	3.15**	
	중년기	11.60 (2.65)	77.3		
부모 역할 만족도	장년기	19.30 (3.63)	77.2	2.98**	
	중년기	18.15 (3.62)	72.6		

* $p < .05$ ** $p < .01$ *** $p < .001$

a: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1.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0이다.

b: 부인이 취업한 경우가 1. 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0이다.

c: 자녀가 있는 경우가 1. 자녀가 없는 경우가 0이다.

2. 기혼 직장남성의 가족 및 직업 관련 특성

1) 중·장년기에 따른 기혼 직장남성의 가족관련 특성

〈표 2〉는 기혼 직장남성의 가족관련특성을 중·장년기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부인 취업여부, 자녀유무, 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는 중년기와 장년기 집단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에, 부모동거여부는 중·장년기 집

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⁴⁾.

부인이 취업한 비율은 장년기 40%, 중년기 29%로 장년기가 더 높았다. 자녀가 있는 비율은 장년기에 80%, 중년기에 99%로 나타나서 중년기 남성이 장년기 남성에게 비해 더 높다. 장년기 남성은 중년기 남성보다 자신의 결혼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장년기의 결혼만족도가 중년기의 결혼만족도보다 높다는 연구결과(정현숙, 1996)와 일치하는 것이다.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해서도 장년기

4) 부모동거여부, 부인취업여부, 자녀유무 변수는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분할표 분석법을 통해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는 t 검증을 통하여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직업관련특성변수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는데 있어서도 직업유형은 분할표분석법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직업 융통성, 직업안정성, 동료관계의 질, 직업만족도는 t 검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남성이 중년기 남성보다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에 비해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더욱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Barnett et al., 1992)와 관련이 있다.

2) 중·장년기에 따른 기혼 직장남성의 직업관련 특성

〈표 3〉은 기혼 직장남성의 직업관련특성 변수를 중·장년기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직업유형과 직업융통성이 장년기, 중년기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에 직업안정성, 동료관계의 질, 직업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직 및 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장년기 37%, 중년기 61%로 장년기보다 중년기의 남성이 전문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업융통성에 관해서는 중년기 남성이 장년기 남성에 비해 직업에 대한 융통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기집단에서 전문 및 관리직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선

행연구(Jason & Martin, 1982; Benin & Nienstedt, 1985에서 재인용)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다고 한것과는 달리 직업만족도는 중·장년기 간에 차이가 없었다.

3. 중·장년기 기혼 직장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가족 및 직업 관련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중·장년기 기혼 직장남성의 가족 및 직업특성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족관련 변수와 직업관련 변수가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중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각각의 독립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0.5를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는 기혼 직장남성의 가족 및 직업특성 변수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년기별로 비교한 중회귀분석결과표⁵⁾이다.

〈표 3〉 중·장년기에 따른 기혼 직장남성의 직업 관련 특성

관련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위점수	F(t)값	χ^2
직업 유형 ^a	장년기 중년기				25.18***
직업 융통성	장년기 중년기	12.42 (3.36) 13.63 (3.54)	62.1 68.2	-3.55***	
직업 안정성	장년기 중년기	13.49 (3.13) 13.92 (3.82)	67.5 69.6	-1.31	
동료 관계의 질	장년기 중년기	13.73 (2.86) 14.25 (2.70)	68.7 71.3	-1.84	
직업 만족도	장년기 중년기	10.76 (3.29) 10.90 (3.32)	53.8 54.5	-.45	

* $p < .05$ ** $p < .01$ *** $p < .001$

a: 전문 및 관리직을 1로 사무직을 0으로 재부호화한 값이다.

5) 중회귀분석의 가정에 위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오차항간의 체계적인 관련성 검증(Durbin-Watson test), 오차항의 정

〈표 4〉 기혼 직장남성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심리적 복지감	2. 부모 동거 여부	3. 부인 취업 여부	4. 자녀 유무	5. 결혼 만족도	6. 부모 역할 만족도	7. 직업 유형	8. 일의 융통성	9. 직업 안정성	10. 동료 관계의 질	11. 직업 만족도	12. 교육 수준	13. 소득	14. 연령
1. 심리적 복지감	1.0000													
2. 부모동거여부	.01	1.0000												
3. 부인 취업여부	.13**	.08	1.0000											
4. 자녀 유무	-.09*	-.00	-.23***	1.0000										
5. 결혼 만족도	.22***	-.12**	-.01	-.15**	1.0000									
6. 부모역할만족도	.32***	-.00	.00	.00	.35	1.0000								
7. 직업 유형	.15**	-.08	.04	.04	.03	.05	1.0000							
8. 직업융통성	.24***	.02	.10*	-.07	.13**	.08	.19***	1.0000						
9. 직업 안정성	.28***	-.00	.13**	-.07	.17**	.04	.30***	.08	1.0000					
10. 동료관계의 질	.31***	.04	.03	-.01	.13**	.15**	.02	.32***	.09*	1.0000				
11. 직업 만족도	.44***	-.01	.09*	-.05	.15**	.14**	.17***	.25***	.28***	.24***	1.0000			
12. 교육수준	.19***	-.03	.16	-.15**	.15**	.04	.39***	.10*	.19***	-.01	.17**	1.0000		
13. 소득	.13**	-.10*	-.11*	.19***	.00	-.06	.41***	.07*	.14**	-.01	.22***	.25***	1.0000	
14. 연령	-.03	-.03	-.14**	.41***	-.18***	-.14	.26***	.11*	-.00	.06	.01	-.07	.43***	1.0000
평균	36.60	.17	.36	.88	12.09	16.56	.47	12.81	13.61	13.98	10.84	16.06	240.41	38.69
표준편차	8.24	.37	.48	.33	2.61	6.95	.50	2.45	3.44	2.82	3.28	2.71	103.60	7.44

* p<.05 **p<.01 ***p<.001

〈표 5〉에 의하면 교육수준과 소득을 통제변수로 놓고 가족, 직업특성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장년기 남성의 경우 전체 분산의 32%정도가 설명되고 있으며, 중년기 남성의 경우 전체 분산의 39%가 설명되고 있다.

중·장년기 모두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역할만족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Voydanoff & Donnelly, 1989), 직업만족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leary & Mechanic, 1983; Kinnunen et al., 1996)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들 두

변수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혼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부모역할만족도는 장년기에, 직업만족도는 중년기에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부모역할만족도가 장년기 남성에게서 그 영향이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년기의 아버지일수록 자존감이 높다는 연구(Voydanoff & Donnelly, 1989)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Campbell(1981)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하여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년기 남성의 경우에 직업만족도가 심리

규분포검증(normality)을 살펴본 결과, 히스토그램에 나타난 분포가 정규분포곡선에 가까웠고, Durbin-Watson 검증은 1.89로 나타나 자기 상관(auto correlation)이 없으므로 오차항간 독립성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상관관계표에서 부모 동거여부는 심리적 복지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 5〉 장년기 기혼 직장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가족 및 직업 관련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

관련변수	장년기		중년기	
	b	β	b	β
교육 수준	.13	.04	.26	.09
소득	.00	.04	.01	.07
부인 취업 ^a	1.37	.08	.45	.03
자녀 유무 ^b	-9.35	-.45**	-11.67	-.16*
결혼만족도	.25	.07	.10	.03
부모역할만족도	.50	.50***	.33	.17*
직업 유형 ^c	.99	.06	-.81	-.05
직업 융통성	.31	.13*	-.02	-.01
직업 안정성	.50	.19**	.18	.09
동료관계의 질	.31	.11	.78	.26***
직업 만족도	.56	.22**	.86	.35***
상수항	25.13		13.11	
F	8.21***		8.91***	
R ²	.32		.39	

* $p < .05$ ** $p < .01$ *** $p < .001$

a: 부인이 취업한 경우를 1, 취업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둔 가변수이다.

b: 자녀가 있는 경우를 1, 자녀가 없는 경우를 0으로 둔 가변수이다.

c: 직업이 전문직 또는 관리직인 경우를 1, 사무직인 경우를 0으로 둔 가변수이다.

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나이든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에 비해 직업에서 더 큰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Turnipseed, 1994)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직업융통성과 직업안정성은 장년기의 심리적 복지감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동료관계의 질은 중년기의 심리적 복지감에만 영향을 미쳤다. 즉, 직업융통성이 높을수록, 직업안정성이 높을수록 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며 동료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졌다. 직업융통성이 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장년기 남성의 직업융통성이 중년기 남성보다 유의하게 낮으며 전문직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았던 것(표 3)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직업안정성이 장년기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자신의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더라도 근로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업 불안정성에 의해 적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 Wilson과 그의 동료들(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동료 관계의 질이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중년기 남성의 사회적 지원망이 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Cochran et al., 1990), 동료와의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중년기 성인의 사회적 관계망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부인 취업여부와 결혼만족도, 남성의 직업유형은 중·장년기에 관계없이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부인취업여부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Benin과 Nienstedt (198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반면에 부인취업이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eith & Shafer, 1983)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essler & McRae, 1982)는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은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Cleary & Mechanic, 1983; Mills et al., 1992)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남성의 직업유형도 중·장년기에 관계없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 결과는 전문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박미석, 1996; Turnipseed, 1994)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직업관련변수들이 중·장년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서, 남성에게 가족과 직업이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혼 직장남성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은 중간정도로, 중·장년기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척도의 차이로 인해 절대적인 비교가 어렵다고는 하나,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을 연구한 대부분의 서구 연구결과가 긍정적인 쪽으로 두드러지게 편포된 것(Benin & Nienstedt, 1985; Campbell et al., 1976; 박미석, 1996에서 재인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척도의 차이로 인한 오차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기혼 남성이 서구의 기혼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심리적 복지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장년기에 관계없이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유사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일정한 연령층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둘째, 가족 및 직업관련특성이 중·장년기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본 결과 직업관련특성보다 가족관련특성에서 중·장년기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족관련특성 변수중에서는 부인취업여부, 자녀유무, 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가 중·장년기 연령집단별 차이를 보인 반면에, 직업관련특성 변수중에서는 직업유형과 직업용통성만

이 차이를 보였다.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는 중년기 남성보다 장년기 남성이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직업용통성은 장년기 남성보다 중년기 남성이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연령의 차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개인발달적 경험의 차이는 직업측면보다는 가족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둘째, 중년기의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가 장년기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볼 때 남성은 중년기 시기에 가족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남성이 가족적으로는 부부관계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해야 하는데다가 노부모 복지에도 책임과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신체적·생리학적 노화가 시작되므로 가족, 개인적으로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변수를 통제한 후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가족 및 직업특성 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장년기에 관계없이 가족특성변수중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특성변수중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기혼직장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삶이 주로 가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거나(Lein et al., 1974; Barnett et al., 1992에서 재인용) 직업에 의해서만 영향받는다(Erickson, 1980; Barnett et al., 1992에서 재인용)는 기존의 견해들이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나라 남성의 삶에 가족과 직업이 동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영향력 면에서는 중·장년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장년기의 남성은 가족 생활 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에서, 중년기 남성은 직업 생활에 대한 만족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는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년남성이 아버지역할이나 가족역할을 직업역할에 비해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장년기 남성은 직업역할이상으로 가족, 특히 아버지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넷째, 가족특성변수중 부모역할만족도가 가지는 영향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직업유통성이나 직업안정성, 혹은 동료관계의 질과 같은 직업특성변수 또한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업유통성과 직업안정성은 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동료관계의 질은 중년기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직업유통성이 장년기의 심리적 복지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년기 남성이 중년기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작업량과 시간적인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직업안정성이 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년기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어리므로 상대적으로 교육여년이 길 뿐 아니라 경제적인 기반도 취약하므로 중년기에 비해 실업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동료관계의 질이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중년기 남성의 사회적관망이 직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존 직장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장년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장년기에는 직업의 구조적인 측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중년기에는 직업 내의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부인 취업여부와 결혼만족도, 남성의 직업 유형은 중·장년기에 관계없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중에서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Cleary & Mechanic, 1983; Mills et al., 1992)들이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는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역할만족도가 결혼만족도의 영향력을 희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남성의 결혼 생활 중에서 부모-자녀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하겠다. 직업유형 또한 연령집단에 관계없이 심리적 복지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직업이 전문 및 관리직인 경우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난다(박미석, 1996; Campbell et al., 1976; Turnipseed, 1994)고 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유형과 관련되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수준이나 소득, 일의 유통성, 직업안정성 등이 통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 특성 변수와 직업 특성 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족 변수는 객관적 지표를 주관적 지표보다 많이 설정한 반면에, 직업특성 변수는 객관적 지표를 주관적 지표보다 적게 설정하여 변수 자체에 불평등성이 존재한다. 심리적 복지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지표가 객관적인 지표보다 설명력이 높으며 객관적이고 인구학적인 특성은 인생의 다양한 면모를 인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견해(Morgan & Rogers, 1975; Keith & Schafer, 1983에서 재인용)로 미루어 볼 때, 직업관련특성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장되었을 위험이 있다.

둘째, 성인기 연령층을 중·장년기 두 집단으로 크게 분류하였기 때문에 같은 연령집단내의 여러 가지 변화가능성을 포착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20년이라는 연령폭은 발달단계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환경 및 주요한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므로(한경혜, 1996), 후속 연구에서 연령층을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여 다양한 연령층간의 차이를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셋째, 변수들 중 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직업만족도 등은 연구자에 따라서는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영역으로 포함되기도 하며, 동료 관계의 질 또한 직업만족도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자에서는 이들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직업특성이 중·장년기 기존 직장남성의 심리적 복지

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남성 연구에서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가족영역을 직업과 함께 고려하여 보았기 때문에 가족과 직업특성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었으며, 둘째, 기혼 직장 남성을 중·장년기별로 나누어 가족과 직업의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서, 중·장년기에 따라 가족과 일이 가지는 영향력, 혹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참고 문헌】

-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33.
- 이숙현(1995). 남성의 취업과 가족 상호작용: 대기업 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 271-289.
- 이정덕·최은경(1994).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논집 33, 321-343.
- 이희정(1994).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나(1994). 남성의 직업 역할과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역할(Fathering)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1996).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패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2), 51-60.
- 조은숙(1997).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 긴장에 대한 대처 행동정도와 지각된 대처 효율성 및 관련 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미정, 옥선화 (1994).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 부담과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2 (5), 1-13.
- 한경혜(1996).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와 직업역할; 전이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231-244.
- Barnet, R. C., Marshall, N. L., and Pleck, J. H. (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58-367.
- Benin, M. H. and Nienstedt, B.C.(1985). Happiness in single and dual earner families; The effects of marital happiness, job satisfaction, and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4), 975-983.
- Campbell, A., Converse, P. E. and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 Cleary, P. D. and Mechanic, D.(1983). Sex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married Peo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111-121.
- Coverman, S.(1989). Role overload, role conflict, and stress: Addressing consequences of multiple role demands. *Social Forces* 67(4), 965-982.
- Keith, P. M. and Schafer, R. B.(1983).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both spouse and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Journal of the Marriage and the Family* 45, 877-885.
- Kessler, R. C. and McRae, J. A. (1982).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216-227.
- Kinnunen, V., Gerris, J. and Vermulst, A.(1996). Work experience and family functioning among employed father's with children of school Age. *Family Relations* 45, 449-455.
- LaRossa, R.(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7, 451-457.
- Larson, J. H., Wilson, S. M. and Beley, R.A.(1994). The impact of job insecurity on marital and family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3, 138-143.
- Mills, R. J., Grasmick, H. G., Morgan, C.S. and Wenk, D.(1992). The effect of gender, family satisfaction, and economic strain on psychological well-being. *Family Relations* 41, 440-445.

- Turnipseed, D. L.(1994).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Work environment variables and moderators on the burnout syndrom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9), 782-800.
- Ulbrich, P. M. (1988). The determinants of depression in two-incom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121-131.
- Umberson & Gove(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23-932.
- Voydanoff, P. and Donnelly, B.W.(1989). Work and family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23-932.
- Wilson, S. M., Larson, J. H. and Lee, K. L.(1993). Stress among job insecure workers and their spouses. *Family Relations* 42, 74-80.